별첨 1

제6차 가상자산위원회

모 두 말 씀

2026. 11. 24. (화) 15:00

금융위원장

이 억 원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I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.

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**제6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**에 참석해 주신 **민간위원**님들과 **관계부처 및 관계기관**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**감사**드립니다.

지난주 **FSB 총회**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당국자들과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 어제는 **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** 및 **전문가**들과 함께 우리 디지털자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, **디지털자산**이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나 일부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, **글로벌 금융질서의 중요한 한 축**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

새로운 산업의 **규제 불확실성을 해소**하고, **시장의 신뢰와 투명성**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**체계적인 규율체계 마련**을 **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.**

Ⅱ. 그간의 변화와 정부 정책

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
전통 금융업과 디지털자산업 간 협업이 확대되고,
결제와 실물자산의 토큰화 등
금융산업 전반으로 **디지털자산의 활용 영역**이
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.

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**법·제도 마련**을 넘어
구체적인 **감독체계 정립**과 **국가 간 국제공조 강화** 등
한 층 발전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우리 정부도 2018년 **가상통화 거래 실명제**를 시작으로,
2021년 **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** 도입,
2024년 7월 「**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**」 **시행**에 이르기까지
가상자산의 **제도권 편입**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.

국내 가상자산시장도
이용자 수가 **1천만 명**에 달하는 규모*로 성장하였습니다.

* '26.11.19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가총액 **52.7조원**

그러나 그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
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**중점**을 두면서,
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
충분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.

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국내 시장은
기존 거래소와 **개인 투자자 중심**으로 고착화되어,
새로운 플레이어의 **경쟁과 혁신**이
제한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.

이제는 **시장의 신뢰**와 **이용자 보호**를 강화하는 동시에
산업의 **혁신과 성장**을 지원하는 **종합적인 규율체계**를
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.

Ⅲ. 「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주요 내용

정부는 관계기관과 업계,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
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
「**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**」제정안을
마련하였습니다.

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
본격적인 입법 추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법안은 디지털자산 **산업의 성장과 혁신,**
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,
그리고 **이용자 보호**를 함께 아우르는
디지털자산에 관한 **통합적인 법률**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.

정부는 **세 가지 방향**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첫째, 디지털자산 **산업의 혁신과 성장**을 **제도적**으로 뒷받침하여 **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**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디지털자산업을 **매매·중개·보관·운용** 등
기능별로 세분화하여,
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
유동성공급, 프라임브로커리지 등
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
국내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블록체인 프로젝트 활성화,
자금이나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
국내 디지털자산 발행(ICO)을 **허용**하는 한편,

디지털 지급수단으로서 **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**하고,
각종 **영업행위 규제체계**를 명확히 하여
새로운 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
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둘째, 시장의 신뢰와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겠습니다.

디지털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
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
이를 위해 **거래소**를 비롯한 **디지털자산업자**에 대해
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
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,
보관자산에 대한 주기적 점검,
전산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의무 및
해킹이나 전산장애 발생시 **무과실 손해배상책임** 부과 등
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.

셋째,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제기된 **주요 쟁점**에 대해서는
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.

먼저, **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**와 관련해서는
제도 **도입 초기의 안정성**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
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되,
향후 시장 여건에 **탄력적으로 대응**할 수 있도록
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다만,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,
인가시 컨소시엄의 **혁신성을 심사**하는 등
기술기업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.

거래소 소유분산 기준과 관련해서는
거래소가 시장의 **핵심 인프라**로서
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,
시장 여건과 **신규 투자**에 미치는 영향 등도
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, **거래소 주식소유 한도**는 **원칙적으로 20%**로 하되,
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
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
예외적으로 34%까지 **소유**할 수 있도록
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기존 및 신규 거래소에는 **3년의 적용 유예기간**을 부여하되,
시장 점유율이 낮은 **중소형 거래소**의 경우
지배주주를 통한 기술혁신과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
추가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Ⅳ. 마무리 말씀

오늘 발표하는
「**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**」제정안은
우리 디지털자산 **시장의**
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
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나아가 **새로운 자금 유입**을 통한
신산업 육성과 **일자리 창출,**
금융 부문과 디지털자산업 간의 협업 확대 등으로
우리 **금융산업 전반의 혁신**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다만, **혁신**은 반드시 **신뢰를 바탕**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
우리가 미처 **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**을 **수반**할 수 있습니다.
최근 국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**해킹 사고**에서 보았듯이,
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
산업의 성장과 발전도 **지속될 수 없**습니다.

디지털자산 산업이 **지속가능한 성장**과
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
새로운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
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
시장의 회복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.

정부는 **혁신과 신뢰가 함께 성장**하는
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오늘 발표한 법률 제정안이 **국회에서 충분한 논의**를 거쳐
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오늘 함께해 주신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
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**제도가 현장에 안착**할 수 있도록
가감 없는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오랜기간 시장에서 기다려 온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,
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